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의 연구 동향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Reading Ability-related Fields

이 세 나 (Sena Lee)**

< 목 차 >

I. 서론	IV. 연구 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연구 방법	

요약: 이 연구는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의 연구 동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으로 검색된 논문을 개별적으로 수집한 후, 저자 키워드를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에서 진행되는 독서/읽기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독서 능력 관련 연구에서는 대학 교육 내용을 제외하면 학교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사서교사의 정보활용능력, 자기주도학습, 정보서비스 관련 교육이 주요 연구 영역이고, 읽기 능력 관련 연구에서는 아동의 초기 문해 관련 연구, 이와 연결된 부진, 장애 관련 연구들이 주로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독서/읽기 능력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 영역에서 모두 진행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고, 청소년 독자에 대한 연구는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 모두에서 활발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독서 능력, 읽기 능력,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초기문해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and analyze trends in research on reading ability. To do this, collecting articles searched for 'reading ability', a keyword network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author's keywor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terms were used interchangeably in studies related to reading education at universities. In the study related to reading ability 1, the main research areas are school library, school librarian, information literacy, self-directed learning, and information service. In the study related to reading ability 2, the main research areas are children's early literacy, related reading difficulty and disability. In addition, studies on reading evaluation are being conducted in both areas, but not much activation has been performed. Studies involving adolescents show limited activity in both areas.

KEYWORDS: Reading Ability, Keyword Network Analysis, School Library, School Librarian, Early Literacy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52962).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dreammor@naver.com / ISNI 0000 0005 1267 0973)

• 논문접수: 2023년 8월 21일 • 최초심사: 2023년 8월 29일 • 게재확정: 2023년 9월 6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3), 223-248, 2023. <http://dx.doi.org/10.16981/kliss.54.3.202309.223>

* Copyright © 2023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몇 해 전 ‘사흘’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정부가 ‘광복절부터 사흘 연휴’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이 ‘3일 연휴인데 왜 사흘이라고 하느냐’는 글을 게시한 것이다(손성원, 2020). 작년에는 ‘심심한 사과’라는 용어가 논란이 되었다. 행사 진행 과정의 오류를 알리는 주최 측의 공지글 중 ‘예약 과정 중 불편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립니다’라는 내용에 대해 일부 사용자들이 ‘어느 회사가 사과문에 심심한 사과를 줘’, ‘이것 때문에 더 화나는데 꼭 ‘심심한’이라고 적어야 했냐’라는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다(전성원, 2022). 최근 몇 년 사이 이와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면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필요하다’라거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질 문맹률이 높다’(신재우, 2022)라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러한 논란과 함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나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PISA는 OECD에서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마다 진행되는 평가로, 읽기, 수학, 과학 분야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PISA에서는 읽기 영역에 대하여 현대 사회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읽기 수준을 2수준 이상이라 제시하고 있다(최숙기, 2017, 45). 즉 읽기 영역에서 2수준보다 아래인 1수준 또는 1수준 미만의 결과를 받은 경우 현대 사회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읽기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실제 PISA 평가에서 1수준 이하 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은 2012년 7.6%, 2015년 13.6%, 2018년 15.1%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교육부, 2016: 2019a; 이세나, 2023, 26).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 평가에서는 평가 결과를 4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학생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낮은 단계인 기초학력 미달은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수준”을 의미한다(교육부, 2019b).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국어 영역에서 기초 학력 미달 수준인 학생의 비율은 2019년 4.1%, 2020년 6.4%, 2021년 6.0%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등학교 2학년도 2019년 4.0%였던 비율이 2020년 6.8%, 2021년 7.1%로 증가하는 추세이다(교육부, 2022: 이세나, 2023, 27).

앞서 살펴본 문해력 관련 논란, PISA의 읽기 영역 평가 결과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통해 학생들 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읽기 능력, 독서 능력 등으로 언급된다. 읽기 능력과 독서 능력 모두 ‘reading ability’로 번역되지만, 연구자마다 또는 학문 분야마다 두 용어를 동의 관계로 사용하기도 하며, 서로 다른 범주의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면서 다문화 이동에 대한 기초 학습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기성훈, 2023),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에 따른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가함에 따라, 읽기 능력 또는 독서 능력에 대한 연구는 읽기/독서 부진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읽기 교육에 대한 연구와 많은 부분이 겹쳐지기도 한다. 반면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독서 능력 또는 읽기 능력이 어떤 기능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각 기능과 요인은 아동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떤 발달 순서와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 공통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찾기 어려우며, 연구자마다 개별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관련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연구는 독서 능력, 읽기 능력과 관련된 논문들을 수집하여 저자 키워드를 분석함으로써 독서 능력 또는 읽기 능력의 연구 동향을 서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독서 능력 또는 읽기 능력에 대한 연구들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 주제와 분야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어떤 연구 주제가 중복되거나 독자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이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을 사용하는 의미 범주를 확인하고, 그 의미 범주의 공통 지점과 구분되는 지점을 확인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선행 연구

이 연구는 독서 능력, 읽기 능력에 관련된 논문들을 수집하여 연구 동향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이므로, 독서와 읽기 영역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논문을 찾아보았다. 제시된 선행연구들은 독서, 독서 교육, 읽기, 읽기 교육과 관련하여 전체 연구 분야에 대해 또는 문헌정보학 분야나 국어교육학 분야로 한정해서 연구동향을 분석한 논문들이다.

김종성(2013)은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 연구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서프로그램, 독서 치료 분야에서 진행된 독서 프로그램의 효과나 만족도, 독서 치료 프로그램의 사례 연구 등의 내용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생산되었다. 연구자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서론의 학문적 정립, 독서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 연구방법론 탐구라는 과제를 제안하였다.

김관준(2015)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국외 독서, 독서 교육의 연구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국외 데이터베이스(LISTA)에서 검색한 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 및 독서 교육 연구는 과거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단순한 읽고 쓰는 능력의 학습이나 교양 독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독자, 자료 유형, 공공기관으로 연구 주제가 확장, 세분화되었으며, 또한 디지털 형식의 자료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를 5개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김승주(2019)는 국어 교육 분야에서 진행된 독서 관련 논문들을 수집한 후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연구 주제들을 분석하였다. 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독서 교육에 대한 연구가 문학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편중을 극복하고 연구의 지평을 확장할 것과 독자 관련 연구, 청소년 부진 독자에 대한 연구, 다문화배경 학습자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순영(2011)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의 『독서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국외 『Reading Research Quarterly(RRQ)』에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하여 국내외 읽기 연구 동향을 비교하였다. 『독서연구』에서는 '읽기 일반(이론, 개념)'과 '문학 텍스트/서사 읽기', '읽기 교수법/독서 활동' 관련 논문들이 가장 많았고, RRQ에서는 '문식성 실행(literacy practice)'과 '유창성(flucency)' 관련 논문들이 가장 많았다. 특히 RRQ에서는 관련 논문이 다수 확인되지만 『독서연구』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연구 영역으로 1) 부진아와 저소득층 자녀 연구, 2) 제2언어 학습자와 다문화 교육 연구, 3) 읽기 교사(양성) 연구 등임을 제시하며, 국내 읽기 연구자들이 탐구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Wang, Luo, Gui(2022)는 제2외국어 독서 분야에서 잘 알려진 학술지인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RFL)』에 게재된 논문들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20년까지 RFL에 게재된 184개의 논문에 대해 키워드 동시 출현 분석과 계층적 군집 분석을 진행하였다. RFL에 게재된 논문들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다독(extensive reading), 읽기 유창성(reading fluency), 어휘 학습(vocabulary learning), 영어가 아닌 외국어 읽기(reading of foreig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등이며, 연구 주제 네트워크 중 중심에 있는 6개의 주요 노드는 다독(extensive reading), 읽기 유창성(reading fluency), 어휘 학습(vocabulary learning), 독자 특성(reader characteristics), 독서 교수(reading instructions), 독해(reading comprehension)임을 확인하였다.

Tang, Tseng, Tu(2023)는 디지털 독서 연구의 경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에서 디지털 독서로 검색한 후, 출판 시기를 제한하고(2019년~2021년), 인용 지수를 확인하여, 인용 지수가 높은 논문 61편을 선별하였다. UCINE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논문 사이의 동시 인용 관계를 시각화한 후, 핵심 논문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디지털 독서 연구의 세 가지 주요 목적으로 디지털 독서의 효과 평가, 학습자의 정서적 경험 조사, 학습자 특성이 디지털 독서 과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임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독서 관련 논문들이 자주 다루는 연구 주제에는 효과, 인지, 학습된 행동,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 분석이었으며, 디지털 독서의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논문들의 흔한 주제는 학습자의 의견이나 학습 경험, 태도나 동기였고, 디지털 독서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논문에서는 학습 성과가 가장 일반적인 주제라고 정리하였다.

검토한 내용과 같이 국내 독서 또는 읽기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논문들을 살펴보면, 독서와 읽기를 통합하여 함께 분석한 내용이 없어 독서와 읽기의 전체적인 연구 경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국외 연구 동향을 분석한 김관준(2015)과 이순영(2011)의 연구의 경우, 'reading'이라는 용어를 독서와 읽기로 다르게 표현함에 따라 연구 결과의 차이가 독서와 읽기라는 연구 대상의 차이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실제 연구 결과의 차이는 LISTA에서 검색한 논문과 RRQ 학술지 게재 논문이라는 분석 대상 범위의 차이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외 연구를 소개할 때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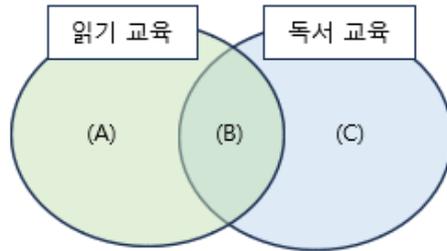
연구자마다 독서와 읽기라는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해석, 종합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독서와 읽기는 서로 다른 의미 범주를 가지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읽기는 말하기 듣기, 쓰기와 함께 국어과 교육과정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어지며, 독서는 고등학교 선택 교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교육과정 편성은 독서가 읽기를 포함하는 상위 범주로 보는 관점과 유사하다. 읽기를 'learn to read'로 보고, 독서를 'read to learn'으로 구분지어 보는 관점으로(김창원, 2009, 98), 이 경우 텍스트를 소리내어 읽고 표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 읽기이고, 이러한 해독 과정을 유창하게 수행하는 독자가 비교, 대조, 추론, 평가, 배경 지식 활용 등과 같은 사고 과정을 동반하여 글을 이해하는 것이 독서라고 본다(이경화, 2005, 78; 조중열, 이임숙, 2004, 128; 천경록, 김혜정, 류보라, 2022, 23). 이 관점에서는 국어 시간 교사의 도움을 받아 읽기를 학습한 후에, 국어 교과 시간 외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책을 읽는 독서가 이루어진다고 본다(천경록, 2008, 244).

반면 읽기를 독서보다 더 포괄적인 활동으로 보는 연구자도 있다. 이 경우에 읽기는 “독자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사고과정”으로, 독서는 “여가적, 교양적 읽기”로 정의된다(서혁, 2006, 134). 또는 읽기의 의미를 확장시켜, 읽기 대상이 영화, 연극, 정치, 시대, 기호, 음악, 미술, 신문 등 모든 문화적 매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이 경우 읽기란 문화적 상징 코드를 이해하는 행위로 영화 읽기, 신문 읽기, 문화 읽기, 시대 읽기 등이 이에 해당하며, 그 중 하나가 책읽기 즉 독서에 해당한다. 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읽기는 'reading'보다 'literacy'에 더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천경록, 김혜정, 류보라, 2022, 24-25). 신문기사에서 사용된 문해 또는 리터러시의 의미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문해 또는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유은지, 2023, 117-126). 즉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독서/읽기 능력이므로, 리터러시/문해라는 용어가 독서/읽기 능력이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독서와 읽기는 그 의미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해와 리터러시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될 정도로 의미가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읽기와 독서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서로 별개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지만 일정하게 겹쳐지는 영역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것이 아래 <그림 1>이다. 김창원(2009, 100)은 ‘읽기’를 ‘learn to read’를 위한 도구교과로 한정된 후, ‘읽기 교육’과 ‘독서 교육’의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정리하였다.¹⁾



〈그림 1〉 읽기 교육과 독서 교육의 관계

(A)는 글을 읽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초급 단계의 읽기 교육을 의미하며, 학생들이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갖추게 되면 (B) 영역까지 확장된다. ‘좁은 의미의 읽기 교육’은 (A)와 (B)를 아우르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C)의 경우 좁은 의미의 읽기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도서관 교육의 영역이다. 비문학 제재 중심의 독서 교육을 뜻하며, 다양한 자료를 읽으면서 적절한 독서 전략을 적용하고, 독서 과정을 스스로 주도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읽기 교육을 완전히 배제한 독서 교육은 찾기 어렵기 때문에 (C)는 (A), (B)와 분리되지 않고 이루어지게 된다(김창원, 2009, 99-101).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적용되는 읽기 교과와 고등학교 선택 교과 중 하나인 독서 교과를 구분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읽기 교과와 독서 교과의 내용 체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²⁾

〈표 1〉 2015개정 교육과정의 읽기 교과와 독서 교과의 내용 체계

	읽기	독서
읽기/독서의 본질	의미 구성 과정 문제 해결 과정 사회적 상호작용	글, 책의 선택 주제 통합적 독서
읽기/독서의 방법	읽기의 구성 요소 - 독자, 글, 맥락 읽기의 과정 읽기의 방법 - 사실적 이해 - 추론적 이해 - 비판적 이해 - 창의적 이해 - 읽기 과정의 점검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

1) 〈그림 1〉은 김창원(2009, 100)의 그림을 재구성한 것임

2)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2015, 7, 93)

	읽기	독서
읽기/독서의 분야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 - 정보 전달 - 설득 - 친교, 정서 표현 읽기와 매체	인문, 예술,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분야의 글 읽기 시대의 특성, 지역의 특성,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
읽기/독서의 태도	읽기 흥미 읽기의 생활화	자발적 독서 계획과 실천 독서 문화에의 참여

교육과정에서는 읽기 교과와 글의 내용과 기능이 심화, 발전된 것이 독서 교과인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김혜정, 2016, 183). 읽기 교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이해, 읽기 과정의 점검이라는 읽기 방법은 독서 교과에서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로 반복 제시된다. 읽기 교과에서 글의 유형을 정보 전달을 위한 글, 설득을 위한 글, 친교와 정서 표현의 글로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글의 목적과 매체에 따른 읽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면, 독서 교과에서는 이를 인문, 예술,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분야의 글로 텍스트의 구분을 세분화하고, 또한 시대, 지역, 매체를 고려한 독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독서 교과는 읽기 교과에서 학습한 기능적 요소를 반복하면서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읽기와 독서의 의미 범주 분별이 필요한 이유는 교육과정에서 읽기와 독서가 구분되어 제시되므로 각 영역을 뚜렷이 정리하여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며, 실제 국어 교사와 사서 교사가 구분되어 양성되므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교화하기 위함이고, 읽기와 독서 관련 연구의 내용과 방법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학문적 체계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창원, 2009, 108-109).

Ⅲ. 연구 방법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의 연구 동향 분석이므로,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 관련 논문들을 수집하여 저자 키워드를 중심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KCI에서 각각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 키워드로 검색하여 학술지 논문을 수집하였다. 기간 제한 없이 논문들을 검색한 결과 '독서 능력' 또는 '읽기 능력'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들은 2002년부터 출판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논문 출판 기간의 종점은 2023년 6월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을 구분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유학생이나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읽기 관련 논문, 영어·일본어 등의 제2외국어 학습과 관련된 논문들은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이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지체 등 특수 교육 영역임이 분명

한 논문들도 제외하였다. 그리고 독서 능력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과 읽기 능력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 중 서로 중복되는 논문 167건 역시 삭제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논문은 독서 능력 논문 431건, 읽기 능력 논문 790건으로 전체 1,221건이다.

수집한 논문의 서지데이터에서 저자 키워드를 추출하여 키워드 정제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키워드 정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검색 키워드인 독서 능력, 읽기 능력을 삭제하였다. 또한 독서와 읽기는 독서/읽기 능력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범용어이므로, 독서와 읽기 역시 삭제하였다.
- 2) 띄어쓰기를 제거하거나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 3) 유의어를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주도학습'으로, '초기 문해', '조기 문해'는 '초기문해'로, '서사 이해', '이야기 이해'는 '서사이해'로 통일하였다.
- 4) '독서 흥미'와 '읽기 흥미' 또는 '독서 태도'와 '읽기 태도'처럼 독서 또는 읽기로 용어는 구분하여 사용하지만 동일한 의미 범주를 가지는 어휘들을 통일하기 위해, 독서와 읽기를 삭제하고 '흥미'와 '태도'로 수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때 '읽기 장애'와 '독서 장애'는 '장애'로 수정하였으나, '학습 장애', '언어 장애' 등의 키워드는 그대로 유지하였고, '읽기 부진'과 '독서 부진'은 '부진'으로 수정하였으나 '학습 부진' 키워드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 5) '나혜석', '김유정'과 같은 작가 이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오딧세이아'와 같은 작품 이름 등과 같은 고유 명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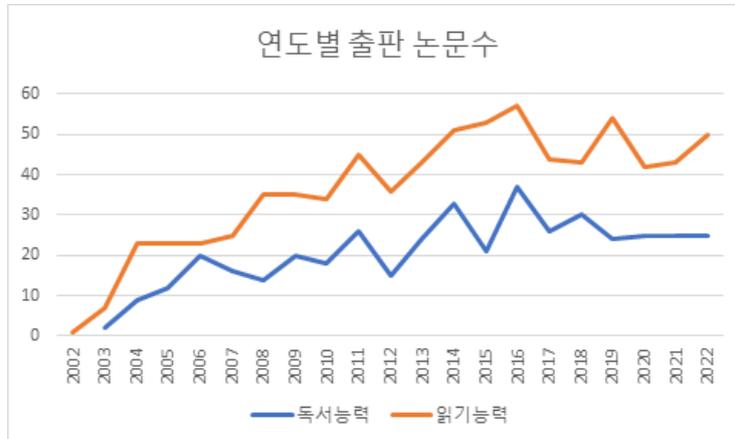
정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독서 능력 키워드로 수집된 논문들과 읽기 능력 키워드로 수집된 논문들을 구분하여 키워드들의 빈도 분석, 연결중심성 분석, 매개중심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는 NetMiner 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³⁾

IV. 연구 결과

1. 수집된 논문의 서지사항 분석

먼저 수집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도별 출판 논문수를 확인하였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3) 이하 글에선 독서 능력 키워드로 수집된 논문은 '독서 능력 논문'으로, 읽기 능력 키워드로 수집된 논문은 '읽기 능력 논문'으로 칭하도록 한다.



〈그림 2〉 독서 능력, 읽기 능력 논문의 연도별 출판 논문 수

출간 시기 제한 없이 검색한 결과 독서 능력 논문들은 2003년부터, 읽기 능력 논문들은 2002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독서 능력 논문과 읽기 능력 논문 모두 기복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판 논문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6년에서 정점을 찍은 후(독서 능력 37편, 읽기 능력 57편), 이후에는 감소와 증가가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 모두 한해 출판되는 논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시기를 지나, 현재는 일정 수준의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은 논문들이 게재된 학술지들을 살펴보았다. 독서 능력 논문과 읽기 능력 논문 각각 게재 논문이 많은 상위 10개의 학술지를 확인한 후, 학술지의 연구 분야를 살펴보았다. 학술지의 연구 분야는 KCI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발간 학회의 연구 분야 구분을 참고하였다. KCI에서는 학술지의 연구 분야와 학술지 발간 학회의 연구 분야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데, 학술지 연구 분야보다 학술지 발간 학회의 연구 분야가 좀더 구체적인 연구 분야를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게재 논문이 많은 상위 10개의 학술지는 〈표 2〉와 같다.

〈표 2〉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 논문의 게재 논문 수 기준 상위 학술지

번호	독서 능력			읽기 능력		
	학술지명	연구분야	논문 수	학술지명	연구분야	논문 수
1	독서연구	국어교육학	55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언어치료교육	41
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문헌정보학	20	언어치료연구	언어치료교육	40
3	교양교육연구	복합학	17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교과교육학	35
4	한국문헌정보 학회지	문헌정보학	16	국어교육학연구	국어교육학	28
5	청람어문교육	국어교육	13	청람어문교육	국어교육	27

번호	독서 능력			읽기 능력		
	학술지명	연구분야	논문 수	학술지명	연구분야	논문 수
6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문헌정보학	13	한국초등국어교육	국어교육학	24
7	국어교육학 연구	국어교육학	12	새국어교육	국어교육	23
8	새국어교육	국어교육	12	학습장애연구	특수교육	19
9	리터러시연구	한국어교육학	11	열린유아교육연구	교육학	16
10	사고와표현	사회과학	10	유아교육연구	유아교육	16
10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교과교육학	10			

독서 능력 논문들이 많이 게재된 학술지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독서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교양교육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청람어문교육』 순이다. 상위 11개의 학술지 중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개이며, 국어교육학, 교과교육학 등 교육학 분야의 학술지는 『독서연구』, 『청람어문교육』, 『국어교육학연구』 등 6개이다. 또한 『교양교육연구』, 『리터러시연구』, 『사고와표현』 학술지의 경우 학회의 연구 분야가 각각 복합학, 한국어교육학, 사회과학으로 제시되었지만, 세 개의 학술지 모두 대학에서 진행되는 교양교육으로서의 말하기, 읽기, 쓰기 교육을 중심 연구 분야로 다루고 있다(이지영, 2020, 539). 즉 세 개의 학술지는 큰 틀에서 교육학 분야 학술지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독서 능력 논문들은 대부분 문헌정보학 분야 또는 교육학 분야 학술지에 게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읽기 능력 논문들이 많이 게재된 학술지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언어치료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청람어문교육』 순이다. 상위 10개의 학술지 모두 언어치료교육, 교과교육학, 국어교육학, 특수교육 등 모두 교육 분야 학술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국어 교육 분야의 학술지는 『국어교육학연구』, 『청람어문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 『새국어교육』 4개이며, 특수 교육 분야의 학술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언어치료연구』, 『학습장애연구』 3개이다.

독서 능력의 상위 11개의 학술지와 읽기 능력 상위 10개의 학술지 중 두 곳 모두에 이름을 올린 학술지는 『청람어문교육』, 『국어교육학연구』, 『새국어교육』,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를 제외한 3개의 학술지는 국어교육 또는 국어교육학 분야의 학술지이다.

독서 능력 논문과 읽기 능력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중 논문 편수가 많은 상위 10개의 학술지를 확인한 결과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는 주로 독서 능력 관련 논문들을 게재하였고, 특수교육 분야의 학술지는 주로 읽기 능력과 관련된 논문들을 게재하였다. 교육 분야 특히 국어교육 분야의 학술지는 독서 능력 관련 논문과 읽기 능력 관련 논문들을 모두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빈도 분석

정제한 키워드들을 대상으로 NetMiner 4를 이용하여 독서 능력 논문과 읽기 능력 논문 키워드들의 출현 빈도를 확인하였다. 키워드들을 출현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 논문의 키워드 출현 빈도

연번	독서 능력		읽기 능력	
	키워드	출현빈도	키워드	출현빈도
1	교육	71	음운인식	35
2	토론	37	독해	34
3	교양교육	27	유아	33
4	활동	18	부진	32
5	글쓰기	16	글쓰기	29
6	학교도서관	15	유창성	29
7	평가	12	장애	29
8	지도	12	아동	24
9	대학	11	교양교육	23
10	비판적사고	11	교육	22
11	태도	11	학습장애	22
12	아동	10	평가	21
13	문학교육	9	쓰기	21
14	핵심역량	9	그림책	19
15	문해력	8	언어능력	19
16	국어교육	8	전략	18
17	글쓰기교육	8	쓰기능력	17
18	자기주도학습	8	대학	15
19	사서교사	7	태도	15
20	정보활용능력	7	독해력	15
21	방법	7		

독서 능력 논문에서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교육'으로 출현 빈도가 71회이다. 그 다음으로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들은 '토론'(37회), '교양교육'(27회), '활동'(18회), '글쓰기'(16회)이다. 읽기 능력 논문에서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음운인식'으로 출현 빈도가 35회이다. 그 다음으로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들은 '독해'(34회), '유아'(33회), '부진'(32회) 등이다.

독서 능력 논문과 읽기 능력 논문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20개의 키워드를 서로 비교해보면 '교육', '교양교육', '글쓰기', '평가', '대학', '태도', '아동' 키워드는 독서 능력 논문과 읽기 능력 논문 양쪽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키워드를 통해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에 대한 연구들이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양교

육'과 '대학' 키워드를 통해서는 대학의 독서/읽기 교육에 대한 연구에서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평가' 키워드와 '태도' 키워드를 통해서는 연구자들이 독서 평가와 읽기 평가, 독서 태도와 읽기 태도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독서 태도와 읽기 태도를 예로 든다면, 독서 태도는 "독서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심리 상태로 지속적이며 일관성있게 반응하는 내재적으로 학습된 경향성"(황정의, 조미아, 2021, 76)으로 정의되며, 읽기 태도의 경우 "읽기와 관련된 감정 체계로 학습자로 하여금 읽기 상황을 접근하거나 피하도록 하며 이러한 전반적인 성향은 천천히 형성되며 변화하기 어렵다"(지성애, 미송희, 2000, 40)라고 정의된다. 독서 태도와 읽기 태도는 모두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태도' 개념을 독서와 읽기에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독서 태도와 읽기 태도의 정의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독서와 읽기의 개념 차 때문이 아니라 '태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차이이다. 즉 독서 태도와 읽기 태도는 용어 간 의미 차이가 크지 않으며, 동일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용어 사용의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다.

다음에는 한쪽 영역에서는 활발히 사용되는 키워드들이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키워드들을 찾아보았다. 독서 능력 논문에서는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이지만 읽기 능력 논문에서는 찾을 수 없는 키워드는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키워드였다. 또한 '자기주도학습' 키워드는 읽기 능력 논문에서 1회 사용되었고, '정보활용능력' 키워드는 읽기 능력 논문에서는 '정보리터러시'라는 키워드가 1회 사용되었다. 독서 능력 논문에서는 활발히 사용하는 키워드이지만, 읽기 능력 논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키워드들은 학교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사서교사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키워드들이며, '정보활용능력'이나 '자기주도학습' 역시 사서교사의 교육과 연결지어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읽기 능력 논문에서는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이지만, 독서 능력 논문에서는 찾을 수 없는 키워드는 '언어능력', '부진', '학습장애' 키워드였다. 또한 '음운인식', '유창성' 키워드는 독서 능력 논문에서는 1회만 사용된 키워드들이다. 읽기 능력 논문에서는 활발히 사용되는 키워드이지만, 독서 능력 논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키워드들은 '음운인식', '유창성'과 같이 글을 읽기 시작하는 아동이 습득해야 할 '언어능력'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진', '학습장애' 키워드 역시 읽기 능력 논문에서만 활발히 사용되는 키워드인 것도 의미있는 결과라 하겠다.

3. 키워드 쌍의 동시 출현 빈도

독서 능력 논문은 전체 1,710개의 노드와 5,972개의 링크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읽기 능력 논문은 전체 2,547개의 노드와 8,562개의 링크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독서 능력 논문과 읽기 능력 논문 모두 출현 빈도

2회 이상, 동시 출현 빈도 3회 이상인 키워드만을 추출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먼저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 쌍을 정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 논문의 키워드 쌍 동시 출현 빈도

연번	독서 능력			읽기 능력		
	Source	Target	Weight	Source	Target	Weight
1	교육	교양교육	9	글쓰기	대학	10
2	글쓰기	대학	6	독해	부진	8
3	태도	지도	5	독해	유창성	7
4	교육	토론	5	독해	장애	6
5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5	창의적사고	비판적사고	6
6	토론	교양교육	5	아동	장애	5
7	교육	비판적사고	4	언어능력	유아	5
8	자기주도학습	학습능력	4	부진	작업기억	5
9	교양교육	글쓰기	3	부진	장애	5
10	교양교육	대학교육	3	글쓰기	교양교육	5
11	교양교육	대학	3	교양교육	대학	4
12	교양교육	인문	3	교양교육	의사소통교육	4
13	교양교육	중등교육	3	독해	어휘	4
14	교육	학교도서관	3	독해력	유창성	4
15	교육	활동	3	부진	유창성	4
16	교육	핵심역량	3	사고력	비판적사고	4
17	교육	방법	3	쓰기능력	쓰기발달	4
18	교육	창의력	3	아동	부진	4
19	교육	정보활용능력	3	아동	독해부진	4
20	교육	중등교육	3	음운인식	초기문해	4
21				창의적사고	사고력	4
22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4

독서 능력 논문의 경우 ‘교육’-‘교양교육’ 키워드 쌍의 동시 출현 빈도가 9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6회인 ‘글쓰기’-‘대학’ 키워드 쌍이었다. 읽기 능력 논문의 경우 ‘글쓰기’-‘대학’ 키워드 쌍의 동시 출현 빈도가 10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독해’-‘부진’ 키워드쌍이 8회, ‘독해’-‘유창성’ 키워드쌍이 7회로 나타났다.

동시 출현 빈도가 3회 이상인 키워드 쌍 중 독서 능력 논문과 읽기 능력 논문에서 모두 발견되는 키워드 쌍은 ‘글쓰기’-‘대학’(독서 능력 6회, 읽기 능력 10회), ‘토론’-‘교양교육’(독서 능력 5회, 읽기 능력 3회), ‘교양교육’-‘글쓰기’(독서 능력 3회, 읽기 능력 5회), ‘교양교육’-‘대학’(독서 능력 3회, 읽기 능력 4회)이다. 모두 대학에서 진행되는 교양교육 측면에서 진행되는 독서 또는 읽기 교육과 관련된 키워드들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빈도 분석에서도 ‘교양교육’, ‘대학’, ‘글쓰기’ 키워

드가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의 출현빈도 상위인 키워드들 중 중복되는 키워드임을 확인하였다. 즉 대학에서 진행되는 독서 또는 읽기 교육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이 함께 사용되는 용어임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

4. 연결중심성 분석

다음으로 키워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분석하였다. 연결중심성은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들과 얼마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측정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키워드에 연결되는 키워드들이 많을수록 연결중심성이 높아진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영향력, 활동력이 높은 키워드를 의미한다(이정락 외, 2022, 121).

〈표 5〉는 독서 능력 논문의 키워드들과 읽기 능력 논문의 키워드들 중에서 연결중심성 값이 높은 키워드 순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5〉 독서 능력, 읽기 능력 논문 키워드의 연결중심성

연번	독서 능력		읽기 능력	
	키워드	Degree Centrality	키워드	Degree Centrality
1	교육	0.044715	음운인식	0.030151
2	교양교육	0.03252	글쓰기	0.025126
3	토론	0.012195	교양교육	0.017588
4	방법	0.012195	독해	0.015075
5	정보활용능력	0.012195	어휘력	0.015075
6	대학	0.012195	부진	0.015075
7	학교도서관	0.00813	초기문해	0.015075
8	활동	0.00813	쓰기	0.012563
9	해심역량	0.00813	유창성	0.012563
10	자기주도학습	0.00813	음운처리	0.012563
11	학습능력	0.00813	자모음지식	0.012563
12	비판적사고	0.00813	단어쓰기	0.012563
13	독서리터러시	0.00813	아동	0.01005
14	정보서비스	0.00813	쓰기능력	0.01005
15	글쓰기	0.00813	장애	0.01005
16	중등교육	0.00813	쓰기발달	0.01005
17	글쓰기교육	0.004065	잠재성장모형	0.01005
18	대학교육	0.004065	초등	0.01005
19	문제해결능력	0.004065	토론	0.01005
20	사서교사	0.004065	작업기억	0.007538
21			비판적사고	0.007538
22			대학	0.007538



〈그림 4〉 읽기 능력 논문 키워드의 연결중심성 네트워크

독서 능력 논문들의 키워드 네트워크는 ‘교육’과 ‘교양교육’을 중심으로 하나의 큰 집합을 형성하고 있다. ‘교육’ 키워드는 ‘정보활용능력’ 키워드를 통해 ‘정보서비스’, ‘독서리터러시’ 키워드와 연결되며, ‘방법’ 키워드를 통해 ‘학습능력’, ‘자기주도학습’ 키워드들과 연결되기도 한다. 또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 키워드와도 연결된다. ‘정보서비스’ 키워드는 ‘정보활용능력’과 함께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와 관련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독서 능력 관련 연구의 한 축은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에 의해 진행되는 정보활용능력, 독서리터러시 교육, 정보서비스 영역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능력, 자기주도학습의 향상을 꾀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외의 독서, 독서 교육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교도서관 관련 연구가 교육, 리터러시, 청소년 관련 연구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며 독서 연구 영역에서 중심축을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김관준, 2015, 80), 국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 키워드가 네트워크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다. 학교도서관이 독서 또는 읽기 관련 연구에서 주요 연구 주제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교양교육’ 키워드는 ‘대학’, ‘대학교육’, ‘글쓰기’, ‘인문’ 키워드와도 연결되는데 이는 대학

에서 진행되는 글쓰기 교육, 토론 교육 등과 관련이 있다. 대학에서 진행되는 글쓰기, 토론 교육이 독서 능력 연구에서 주요 영역을 형성하고 있음은 게재 학술지 분석, 키워드 빈도 분석, 동시 출현 키워드쌍 분석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읽기 능력 논문들의 키워드 네트워크는 ‘음운인식’을 중심으로 하는 키워드들의 집합과 ‘글쓰기’, ‘교양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키워드들의 집합이 ‘쓰기’ 키워드로 느슨하게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읽기 능력과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두가지 영역을 가지는데 하나는 ‘음운인식’, ‘유창성’, ‘어휘력’ 등과 같은 ‘초기문해’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글자 읽기를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글자 읽기를 배우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키워드들은 ‘부진’, ‘장애’, ‘ADHD’ 키워드와도 연결되고 있어, 읽기 부진이나 읽기 장애 관련 연구들이 초기 독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국어교육학 분야의 읽기 부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초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으며, 청소년 학습자에 대한 연구는 2016년 이후에서야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하고 있다(이수진, 2020, 161-162). 이는 국내 연구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니며, 국외에서도 독서/읽기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초등학교 또는 미취학 아동의 글 깨치기나 초기 독서 지도였고, 청소년 문식성에 대해서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를 반영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독서/읽기 연구에서 청소년 문식성이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연구해야 하는 주제라고 답하고 있다(이순영, 2011, 329-330).

읽기 능력 연구의 또다른 영역은 ‘글쓰기’ 영역이다. 특히 ‘글쓰기’, ‘교양교육’ 키워드와 함께 연결되는 ‘대학’, ‘글쓰기교육’, ‘의사소통교육’ 등은 독서 능력 논문들의 키워드 네트워크와 유사한 부분이다. 즉 대학에서 진행되는 교양 교육 측면의 독서/읽기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글쓰기’ 키워드 영역에는 ‘초등’, ‘쓰기발달’ 키워드처럼 초등 교육 관련 키워드들도 있으며, ‘사고력’, ‘비판적사고’, ‘창의적 사고’와 같이 초등 교육과 고등 교육 양쪽에 포함 가능한 키워드들도 있다. 즉 ‘글쓰기’ 키워드들의 집합은 대학 교육과 초등 교육 관련 키워드들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키워드들의 큰 집합과는 상관없이 2, 3개 키워드들 간의 개별적인 연결만 있는 키워드들 중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키워드는 ‘평가’, ‘평가기준’이다. 즉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독서 능력 논문과 읽기 능력 논문 모두에서 발견되나 아직은 다른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논의되는 수준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독해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연구에서 연구자가 제작하거나 수정, 보완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화수, 엄윤지, 이지우, 2020, 146). 국어 교육 분야에서 읽기 부진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논문마다 읽기 부진을 선별하는 평가 도구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국어 교육 분야에서 읽기 부진 개념이 학술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정리하고 있다(이수진, 2020, 160-162). 이처럼 독서/읽기 능력의 ‘평가’, ‘평가기준’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와 관련 선행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5. 매개중심성 분석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해당 키워드가 네트워크 안에서 다른 키워드들 사이의 중개자 혹은 다리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느냐를 측정하는 개념으로(이성신, 2016, 395), 해당 키워드가 네트워크 내 특정 키워드 쌍 간의 최단 경로에 위치할수록 그 값이 높게 나타난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키워드에 대한 매개, 중재, 통제 기능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정락 외, 2022, 122).

다음은 독서 능력 논문의 키워드와 읽기 능력 논문의 키워드들에 대해 매개중심성 값이 큰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표 6〉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 논문 키워드의 매개중심성

연번	독서 능력		읽기 능력	
	키워드	Node Betweenness Centrality	키워드	Node Betweenness Centrality
1	교육	0.00599	음운인식	0.007232
2	교양교육	0.003136	쓰기	0.006164
3	방법	0.001327	글쓰기	0.00373
4	정보활용능력	0.001327	교양교육	0.003331
5	학교도서관	0.000697	부진	0.002135
6	토론	0.000697	토론	0.001903
7	대학	0.000697	유창성	0.001561
8			독해	0.001557
9			비판적사고	0.001013
10			장애	0.00057
11			아동	0.000532
12			초기문해	0.000519
13			학습부진	0.000519
14			작업기억	0.00038
15			어휘력	0.000219
16			대학	0.000061
17			독해력	0.00003
18			유아	0.000013
19			평가도구	0.000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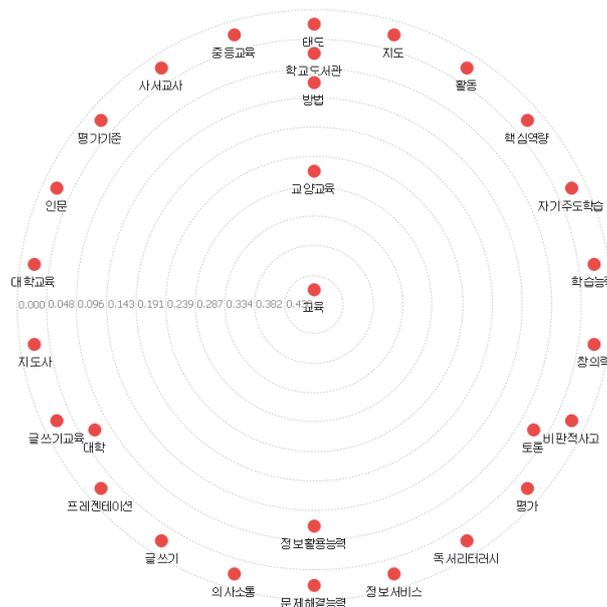
독서 능력 논문의 경우 ‘교육’ 키워드가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양교육’, ‘방법’, ‘정보활용능력’ 키워드 순이었다. 연결중심성에 대한 논의와 동일하게 ‘방법’과 ‘정보활용능력’은 빈도는 큰 편은 아니었으나 매개중심성 값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읽기 능력 논문의 경우 ‘음운인식’ 키워드가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쓰기’, ‘글쓰기’, ‘교양교육’, ‘부진’, ‘토론’ 키워드 순이었다. ‘쓰기’ 키워드의 경우 빈도와 연결중심성 값은 큰 편이 아니었으나 매개중심성 값은 두 번째로 높아서 눈에 띄는 키워드이다. 이는 〈그림 4〉의 키워드 네트워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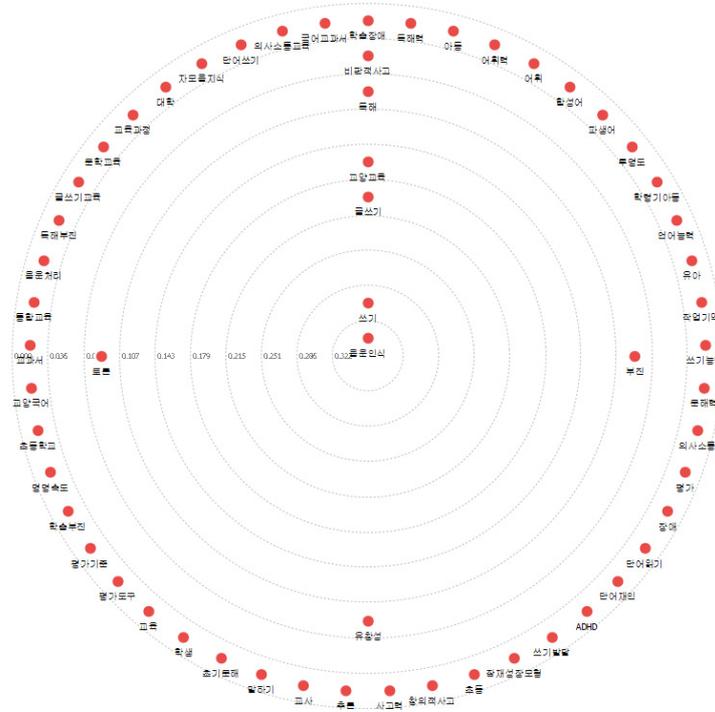
서 확인한 바와 같이 ‘쓰기’ 키워드가 ‘음운인식’을 중심으로 한 키워드들의 집합과 ‘글쓰기’, ‘교양교육’을 중심으로 한 키워드들의 집합을 연결해주는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앞서 ‘4. 연결중심성 분석’에서 논의한대로 ‘쓰기’는 초중등 교육 영역과 대학 교육 영역에서 중복하여 사용하는 키워드이며, ‘음운인식’, ‘학습부진’과 연결되는 ‘쓰기’와 대학의 ‘교양교육’과 연결되는 ‘쓰기’는 의미 범주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쓰기’ 키워드가 연구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해석하기에는 조심스럽다.

독서 능력 키워드들 중 매개중심성 값이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키워드는 위 표에서 제시한 7개 뿐이며, 읽기 능력 키워드의 경우 19개이다. 이는 독서 능력 키워드 네트워크가 ‘교육’과 ‘교양교육’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의 집합을 이루며 서로 연결된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매개중심성은 임의로 선택한 두 개의 키워드를 연결하는 다양한 경로 중, 주어진 노드를 통과하는 최단 경로의 비율로 계산된다(이정락 외, 2022, 122). 읽기 능력 키워드 네트워크의 경우 키워드 집합이 크게 두 개로 구분되기 때문에 ‘음운인식’ 집합에 있는 키워드가 ‘글쓰기’ 집합에 있는 키워드와 최단거리로 연결되기 위해선 ‘쓰기’ 키워드를 포함한 여러 키워드들을 경유해야 할 경우가 많아진다. 하지만 독서 능력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는 키워드들이 하나의 집합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키워드가 키워드들 간의 최단 거리 연결에 반드시 포함될 경우가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매개중심성 값이 0보다 큰 키워드들의 수가 적은 것이다.

다음은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 키워드들의 매개중심성을 시각화한 이미지이다. 원의 중심에 가까운 키워드일수록 매개중심성 값이 큰 키워드임을 뜻한다.



〈그림 5〉 독서 능력 키워드의 매개중심성



〈그림 6〉 읽기 능력 키워드의 매개중심성

V. 결 론

이 연구는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의 연구 동향을 비교 분석하여, 독서 능력 또는 읽기 능력과 관련하여 어떤 주제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지, 어떤 영역이 서로 중복되거나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독서 능력', '읽기 능력'으로 검색된 논문을 각각 수집한 후 해당 논문들의 저자 키워드를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이 된 논문은 독서 능력 논문 431건, 읽기 능력 논문 790건으로 전체 1,221건이다. 독서 능력 논문과 읽기 능력 논문 각각에 대해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분석한 후 빈도가 높은 상위 키워드를 비교한 결과 '교육', '교양교육', '글쓰기', '평가', '대학', '태도', '아동' 키워드가 독서 능력 논문과 읽기 능력 논문 모두에서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임을 확인하였다. 독서 능력 논문에서는 빈도가 높으나 읽기 능력 논문에서는 빈도 수가 1 이하인 키워드들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자기주도학습', '정보활용능력'이었으며, 읽기 능력 논문에서는 빈도가 높으나 독서 능력 논문에서는 빈도가 1 이하인 키워드들은 '언어능력', '부진', '학습장애', '음운인식', '유창성'이었다.

독서 능력 논문과 읽기 능력 논문 모두에서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 쌍은 ‘글쓰기’-‘대학’, ‘토론’-‘교양교육’, ‘교양교육’-‘글쓰기’, ‘교양교육’-‘대학’이었다. 대학에서 진행되는 독서/읽기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독서 능력 논문과 읽기 능력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연구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독서 능력 키워드와 읽기 능력 키워드를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연결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독서 능력 키워드들은 ‘교육’, ‘교양교육’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의 집합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중 ‘정보활용능력’, ‘정보서비스’, ‘독서리터러시’, ‘학습능력’, ‘자기주도학습’은 ‘학교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사서교사’의 독서 ‘교육’과 관련된 키워드들이다. 다른 키워드들은 ‘대학’, ‘대학교육’, ‘글쓰기’, ‘인문’ 등의 키워드로 대학의 독서/읽기 교육과 관련된 키워드들이다. 읽기 능력 키워드들은 ‘음운 인식’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키워드 집합과 ‘글쓰기’, ‘교양교육’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키워드 집합이 ‘쓰기’ 키워드로 느슨하게 연결된 네트워크 형태를 보여주었다. ‘음운인식’ 키워드는 ‘유창성’, ‘어휘력’과 같은 ‘초기 문해’ 키워드들과 연결되며 또한 ‘부진’, ‘장애’, ‘ADHD’ 키워드와도 연결된다. ‘글쓰기’, ‘교양교육’ 키워드는 ‘대학’, ‘글쓰기교육’ 키워드와 연결되며, 이는 독서 교육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도 유사한 키워드들 간의 연결이다. 또한 ‘평가’, ‘평가 기준’은 독서 능력 키워드 네트워크와 읽기 능력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공통으로 발견되지만 다른 키워드와의 연결이 없는 형태로 발견되는데 이를 통해 ‘평가’, ‘평가 기준’과 관련된 연구는 독서 능력, 읽기 능력과 관련된 연구 모두에서 진행되지만 다른 연구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을 보여준다.

키워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매개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독서 능력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는 ‘방법’, ‘정보활용능력’이 다른 주제로 확장 가능성이 큰 키워드임이 확인되었다. 읽기 능력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는 ‘쓰기’가 매개중심성이 두 번째로 높은 키워드였으나 ‘쓰기’는 초중등 교육 영역과 대학 교육 영역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만큼 확장성이 큰 키워드라고 해석하기 조심스럽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대학에서 진행되는 독서/읽기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둘째, 독서 능력 관련 연구에서 대학의 독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면, 학교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사서교사의 정보활용능력, 자기주도학습, 정보서비스 관련 교육 활동이 주로 진행되는 연구 영역이다. 읽기 능력 관련 연구에서도 역시 대학의 읽기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면 음운인식, 단어재인, 어휘력 등의 초기 문해와 관련된 연구, 이와 연결된 부진, 장애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독서/읽기 능력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은 독서 능력 논문과 읽기 능력 논문 모두에서 진행되는 영역이지만 아직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는다.

넷째,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의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아동의 초기 문해와 관련된 키워드, 대학 교육과 관련된 키워드는 분명히 드러나지만 청소년의 독서/읽기 능력과 관련된 키워드들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독서 능력, 읽기 능력 모두에서 청소년 관련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 연구가 중복되어 진행되는 것이 확인된 대학 교육 영역에서는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이라는 용어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또한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 관련 연구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분야인 평가와 청소년 독자 영역은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과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으로 한정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으나, 독서와 읽기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위한 교육,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더 나아가 매체의 다양화를 반영한 리터러시에 대한 논의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학생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부분의 논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추세를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서와 읽기의 의미 관계를 정리하고, 독서/읽기 태도 또는 독서/읽기 동기와 같이 의미 차이가 크지 않은 용어를 통일하며, 아동의 초기문해에서 시작해서 청소년 독자를 거쳐 성인 독자로 완성되는 독서/읽기 능력의 발달, 성장 모형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문간, 전공 분야간 경계를 벗어나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의 학제간 교류가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6. 12. 6.). OECD,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2015) 결과발표.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C&s=moe&m=02&opType=N&boardSeq=65072>
- 교육부 (2019a. 12. 4.). OECD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PISA 2018) 결과발표.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19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교육부 (2019b. 11. 30.).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14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교육부 (2022. 6. 13.). 20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대응 전략 발표.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

YN = W&s = moe&m = 020402&opType = N&boardSeq = 91788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15. 9). 2015 개정 교육과정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출처:
<https://www.ncic.go.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기성훈 (2023. 4. 27.). 다문화 가족 112만명 시대.. 다문화 아동, 청소년 학습 지원 강화한다.
 머니투데이.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2621094643551>
- 김승주 (2019). 토픽모델링과 시계열 분석을 활용한 독서 연구의 동향과 전망 - 최근 10년간
 국어교육학 관련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 청람어문교육, 70, 169-204.
<http://doi.org/10.26589/jockle..70.201906.169>
- 김종성 (2013).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99-124. <http://doi.org/10.16981/kliss.44.3.201309.99>
- 김창원 (2009). 문학과 독서의 상생적 조망: 읽기? 독서교육과 문학교육의 교과론. 독서연구,
 22, 79-114.
- 김관준 (2015). 국외 독서 및 독서교육 연구동향 분석: 문헌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
 지, 32(3), 69-97. <http://doi.org/10.3743/KOSIM.2015.32.3.069>
- 김혜정 (2016). 2015 개정 읽기/독서 교육과정의 내적 논리와 몇가지 쟁점들. 국어교육연구, 62,
 171-196. <http://doi.org/10.17247/jkille.2016..62.171>
- 서혁 (2006). 국어교육 연구의 현황과 발전 방향: 읽기, 독서 영역을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연구,
 10(1), 127-148.
- 손성원 (2020. 7. 22.). '사흘'이 4일? 실검 사태에서 드러난 한국어 사용 민낯. 한국일보.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2212260000449>
- 신재우 (2022. 9. 3.). '심심한 사과' 논란, 핵심은 실질 문맹률 아니다? 뉴시스. 출처: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902_0002001066#_PA
- 유은지 (2023). 신문기사를 통해 본 문해의 의미와 담론: 2000년-2021년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9(3), 105-133. <http://doi.org/10.24159/joec.2023.29.3.105>
- 이경화 (2005). 도서관 활용 독서 교육의 방안. 청람어문교육, 32, 75-97.
- 이성신 (2016).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도서관마케팅 연구 경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383-402. <http://doi.org/10.4275/KSLIS.2016.50.3.383>
- 이세나 (2023). 중학생의 독서 능력 평가를 위한 기본 어휘 구성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수진 (2020). 국어교육분야에서의 읽기 부진 연구 동향: 주제범위 분헌 고찰. 독서연구, 57,
 145-169. <http://doi.org/10.17095/JRR.2020.57.6>
- 이순영 (2011). 읽기 연구의 최근 동향과 과제 - 국내외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구를 중심으로 -.

- 한국어문교육, 10, 311-340.
- 이정락 외 (2022). 빅데이터와 텍스트네트워크 분석.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 이지영 (2020). 토픽모델링 분석을 활용한 학술지 『리터러시 연구』 연구 동향 분석. 리터러시 연구, 11(6), 537-565. <http://doi.org/10.37736/KJLR.2020.12.11.6.18>
- 전성원 (2022. 8. 23.). '심심한 사과' 논란, 지식인 책임은 없나. 한겨레. 출처: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055884.html>
- 조증열, 이임숙 (2004). 초등학생의 읽기 능력, 독서, 학업효능감 및 학업성적 간의 인과적 관계. 한국초등교육학회, 17(1), 127-143.
- 지성애, 마송희 (2000). 유아의 읽기 태도 척도 개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21, 39-57.
- 천경록, 김혜정, 류보라 (2022).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집필한 독서교육론. 서울: 도서출판 역락.
- 황정의, 조미아 (2021). 팟캐스트 제작 독서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독서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52(3), 73-99. <http://doi.org/10.16981/kliss.52.3.202109.73>
- Tang, K., Tseng, Y., & Tu, Y. (2023). Identifying mainstreams of contemporary digital reading research: insights from a co-citation network analysis and systematic review. Interactive Learning Environments, <http://doi.org/10.1080/10494820.2023.2192757>
- Wang, Y., Luo, H., & Gui, M. (2022). Structure of research topics of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s publications in the past two decades(2002-2020): a bibliometric analysis.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34(2), 400-415.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eon, Gyeong-rok, Kim, Hye-jeong, & Ryu, Bora (2022). Reading Education, Seoul: Youkrack.
- Chi, Sung-ae & Ma, Song-hee (200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ading attitude scales in young children.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1, 39-57.
- Cho, Jeung-yeol & Lee, Imsug (2004). Causal relations among reading ability, reading activ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primary 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7(1), 127-143.
- Hwang, Jeong-eui & Cho, Miah (2021). A study on the effect of reading activities making a podcast: focusing on the reading attitude and the communication skills. Journal

-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3), 73-99.
<http://doi.org/10.16981/kliss.52.3.202109.73>
- Kim, Chang-won (2009). Subject theory of reading education and literary education. *Journal of Reading Research*, 22, 79-114.
- Kim, Hye-jeong (2016). Theoretical foundation and issues of the reading curriculum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62, 171-196. <http://doi.org/10.17247/jkll.2016.62.171>
- Kim, Jong-sung (2013). Trends analysis of reading research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99-124. <http://doi.org/10.16981/kliss.44.3.201309.99>
- Kim, Pan-jun (2015).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ading and reading instruction in overseas: focused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3), 69-97.
<http://doi.org/10.3743/KOSIM.2015.32.3.069>
- Kim, Seungjoo (2019). Trends and prospects of reading research using topic modeling and time series analysis: focused on journal articles related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recent 10 years. *Journal of CheongRam Korean Language Education*, 70, 169-204. <http://doi.org/10.26589/jockle..70.201906.169>
- Lee, Jeongrak et al. (2022). *Big Data and Text Network Analysis*. Gyeongsan: Yeungnam University Publication.
- Lee, Ji-young (2020). A topic modeling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Journal of Literacy*. *The Korean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11(6), 537-565.
<http://doi.org/10.37736/KJLR.2020.12.11.6.18>
- Lee, Kyung-hwa (2005). A study on the teaching for library assisted reading education. *Journal of CheongRam Korean Language Education*, 32, 75-97.
- Lee, Sena (2023). *A Study on the Basic Vocabulary Composition for Evaluating Middle School Students' Reading Ability*.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n.
- Lee, Seongsin (2016). A study on the library marketing research trends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3), 383-402.
<http://doi.org/10.4275/KSLIS.2016.50.3.383>

- Lee, Soojin (2020). Trends of research in low achievement in reading within the field of Korean education: a scoping review. *Journal of Reading Research*, 57, 145-169. <http://doi.org/10.17095/JRR.2020.57.6>
- Lee, Soon-young (2011). Recent trends in reading research and its application: analyzing journal articles from 2005 to 2010.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Education*, 10, 311-340.
- Suh, Hyuk (2006). The current status and directions for research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Instruction*, 10(1), 127-148.
- Yoo, Eunji (2023). Exploring the meaning of literacy and related discourses through newspaper articles: focusing on newspaper articles from 2000 to 2021.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9(3), 105-133. <http://doi.org/10.24159/joec.2023.29.3.105>